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각하 내외분을 국빈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만날 때마다 각하의 식견과 한반  
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각하께서 염려해 주시던 북  
핵문제는 이제 핵시설 폐쇄 등 평화적 해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하께서는 조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지도력으로 인도네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고 계십니다. 2004년 각하의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  
임이사국과 아세안의 중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하께서 추진하고 계신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은행이 예견한 대로 '2030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  
고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함께 서명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현인그룹'을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따라 정치, 안보, 자원·에너지, 인프라, IT, 과학기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민관합동 경제협력 태스크포스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방대한 영토,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해 나간다면 양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양국의 협력 증진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인도네시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